

글. 하쿠나마타타 다음 카페 「결핵을 이기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회원

세상에서 가장 먹기 힘든 것이 마음

요즘 사람들에게 '결핵'이라는 병이 구닥다리 소설 속, 뻘하디 뻘~한 옛날 영화 속 가
날픈 여주인공이 걸리는 그런 이미지 정도로만 기억되는 질병이듯, 나도 이 병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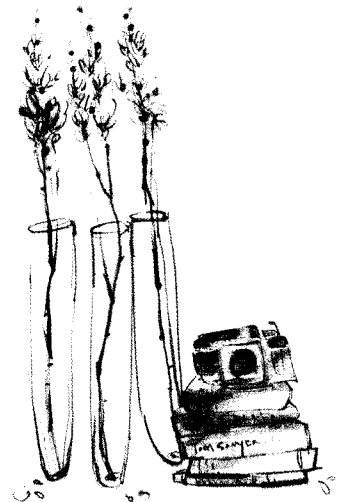
꽤나 예민했던 고3 겨울, 옆 반 친구가 '기흉'으로 입원했고, 친구 문병을 다녀와서
는 가끔 깜짝 깜짝 놀랄 만큼 쿡쿡 쉬시는 옆구리를 잡고 '나도 기흉인가보다' 하며, 양
쪽 폐에 호스를 꽂고 있던 친구모습을 떠올리며 두려워 울어버렸던 기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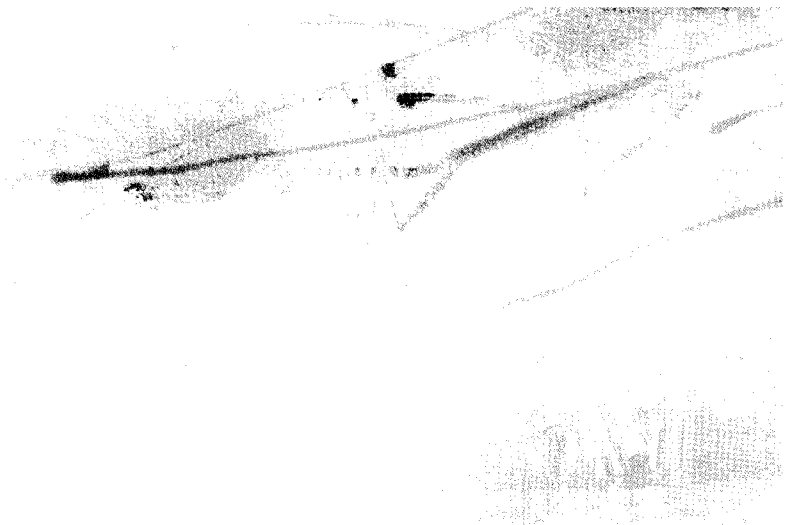
폐결핵은 참을 수 없는 기침을 동반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의 증상은 기침이 아니
었다. 옆구리가 쿡쿡 쉬시는 증상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옆구리 쿡쿡 거리는 증상 정도는 가끔 있다고 하기에 다
른 사람들도 이 정도의, 가끔 찾아오는 통증은 참고 사나보다 하며, 나는 스물여섯까지
잘 살아왔다! 아니, 잘 살았다고 하기에는 '결핵'이라는 판정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심
한 감기에 걸리면 숨 쉴 때마다 쉹쉹 소리가 나고, 등산은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폐활
량이 좋지 않았다. 조금만 움직이면 심장이 어찌나 빨리 뛰는지, 폐가 아니라 심장
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고, 결핵 판정 전 몇 달 동안은 천
식인 것 같다며 흡입하는 약을 몇 통이나 썼고, 종합병원까지 아래저래 병원을
많이 다녔었다.

그런 날들이 지나면서 나 스스로도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생
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의심이 된다면 정밀검사를
받아 보라는 통지서가 나왔다.

폐결핵이 의심되지만, 이 약은 한 번 먹으면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하기 때





문에 좀 두고 보자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다. 가래에도 균이 나오지 않았고 기관지 내시경 검사도 정상이었기에 몇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엑스레이 검사를 하자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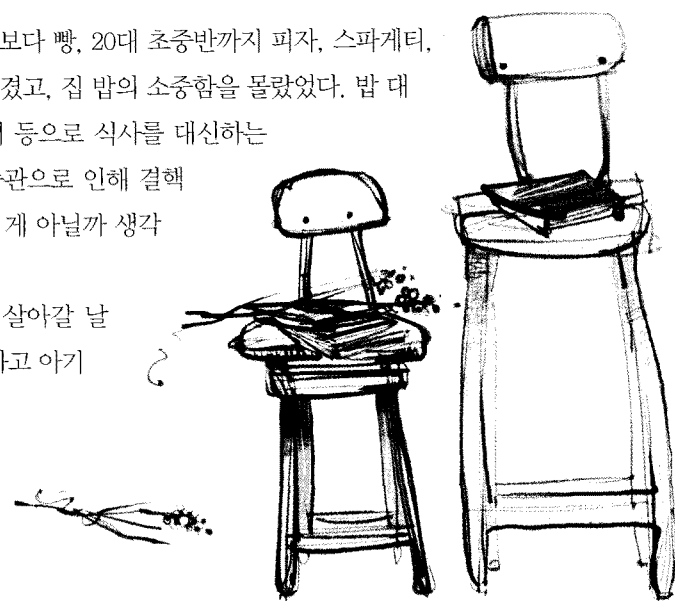
그렇게 몇 개월을 지켜보던 중, 목이 쉬기 시작했다. 쇠소리만 나올 정도로 심하게 목이 쉬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편도선이 따끔거렸다. 나중에 여쭙어보니 결핵균이 건드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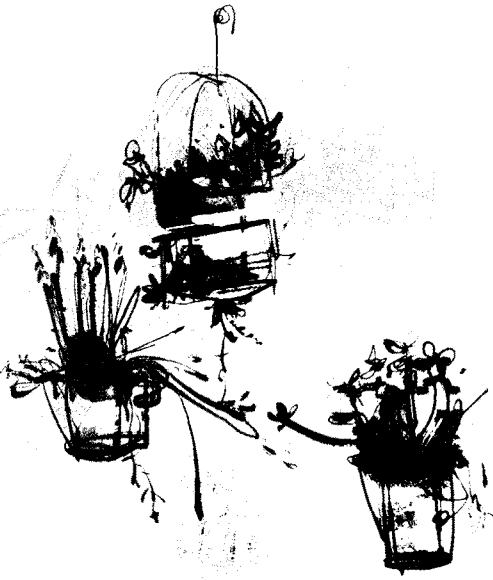
그래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 동안 계속 의심은 났지만 결핵이 나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생긴 흉터일 수도 있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아니길 바랐다. 그렇지만 결국 2007년 4월부터 1년 동안 1차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날, 약을 복용하는 동안 늘 그 날을 생각하며 입맛이 없어도 세끼 꼬박꼬박 밥을 먹으려고 노력했다. 꼭 나올 거고 다신 걸리지 않겠다며...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밥보다 빵, 20대 초중반까지 피자, 스파게티, 자장면 등 밀가루 음식을 즐겼고, 집 밥의 소중함을 몰랐었다. 밥 대신 과자나 초코바, 초코파이 등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날들이 많았는데,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 결핵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의사선생님께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기





도 낱을 몸이니 기본적으로 6개월 복용하지만 1년 복용하기로 하고 열심히 약을 먹었다.

가능하면 밥을 먹으려고 노력했다. 입맛이 없어도 꾸역꾸역 넘겼다. 하지만 밥을 열심히 먹어도 체중은 이상하리만큼 줄었다. 약을 먹으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피부가 검어졌고, 엄청난 트러블이 생겼다. 돌부리에 발이 걸리면 얼굴에 전기가 오르는 느낌이 들 만큼 나의 건강했던 피부는 견잡을 수 없는 좁쌀 여드름으로 가득했다. 지금 그때 사진을 보면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물골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감사하게도 1차 약이 잘 들었고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이십대 중반의 여자에게 까맣고 엄청난 트러블 투성이의 얼굴, 갑작스럽게 감소한 체중으로 달라진 외모는 결코 수월하게 견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약 종료 시점부터 피부과, 피부전문 한의원에 돈을 쏟아 부었고, 안 써본 화장품이 없을 정도로 피부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엄청난 노력 끝에 트러블로 고생한 지 3년 만에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옛날처럼 건강한 피부는 꿈꿀 수 없다.

처음 극복수기를 써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처럼 사회생활 다 하면서 1차 약으로 완치되고, 약 먹으면서 겪은 부작용은 피부트러블이 전부인 사람이 써도 될까 싶었지만 피부트러블만으로도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에 용기 내어 글을 쓴다.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분,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완치되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영양섭취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처음 결핵판정을 받았을 때, 대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전염된 것일까하는 생각들과 남 탓하

세상에서 가장 먹기 힘든 것이 마음이라고 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는 마음이 컸다. 하지만 내가 충분한 영양섭취로 면역력이 강했다라면 그렇게 쉽게 발
병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또 한 가지, 치료를 하면서도 가능하다면 사회생활을 계속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피부까지 망가져, 혹은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사
람들 앞에 나서기 싫겠지만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해야 한 번이라도 더 웃고 투병기간이
덜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약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 약 한알 한알 넘기기가 지옥 같다고
여겨지시는 분들, 이 고통스러운 시간도 결국은 지나간다고 경험자로서 말씀드리고 싶
다. 피부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선은 치료가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건강을
되찾은 후, 그때부터 식습관, 생활습관 모두 다시 시작해서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먹기 힘든 것이 '마음'이라고 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부족하
지만 여러 환우분들께 나의 경험이 조금
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